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소식

발행인: 홍성태 편집인: 김재원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3 전화: 02)794-4146 전송: 02)794-3146 www.kamje.or.kr

의편협 현황 및 가입 안내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단체회원은 2016년 10월 현재 256종 학술지(의학 학술지 197, 의과대학 학술지 11, 치의학 15, 수의학 3, 간호학 20, 영양학 6, 생명과학 4)이며, 개인회원은 44명입니다.

특별회원으로는 (주)갑우문화사, 네이버(주), 광문출판사, 메드랑(의학문화사), 아이비기획, 아카데미아, 엠투커뮤니티, 우리의학사, 인권앰파트너스, 진기획<(주)제이피앤씨> 최신의학사, 크림슨인터랙티브코리아(주), Editage, InfoLumi, ML communications(중앙문화사), XMLink(주) 총 16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단체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홈페이지(kamje.or.kr)의 회원가입 안내를 참고하거나 사무국 (Tel: 02-794-4146, Fax: 02-794-31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JKMS) 의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ICMJE) 회원 학술지 선정 의의

홍성태 (의편협 회장, JKMS 편집인)



대한의학회 발행 JKMS가 ICMJE에 회원 학술지로 선정되는 국가적 경사가 생겼다. 지난 9월 9일에 ICMJE 사무처에서 JKMS가 새로운 회원 학술지로 가입되었음을 알리고 편집인이 금년도 정기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는 연락을 하였다. 모두 50개 응모 학술지 중에서 우리가 선정된 것이다.

대한의학회는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10월 6일 저녁에 힐튼호텔에서 가졌는데 홍성태 대한의학회 간행이사는 학술지 편집인으로 그간 학술지의 발전상을 보고하고 ICMJE 회원 가입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학술지에 대한 성원을 요청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윤성 대한의학회장은 JKMS의 출판사인

아카데미아(1992년부터 책 출판)와 의편협 산하(주)XMLink(2008년부터 온라인 출판)에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이번 회원 가입으로 우리나라 의학 연구자들 논문을 세계에 소개하기 위하여 우리 편집진과 우리 출판기술로 만든 학술지가 전세계 우수 학술지와 같이 나란히 그 이름을 올리는 수준이 되었음을 공인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 인정에 따라서 편집인이 전세계 최상급 학술지 편집인과 같은 자리에서 학술지 출판과 관련된 정책을 논하게 되었다. 이는 혼자서 하기 힘든 학술지 편집을 의편협을 만들어서 꾸준히 학술지 발전을 위하여 우리나라 의학학술지 편집인들이 함께 노력하여 얻은 결과이다. 특히 온라인출판이 학술지 출판의 중심이 된 최근 상황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온라인출판의 R&D를 개선하여 국제 수준으로 출판한 국내 기술진의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런 점에서 이번 ICMJE 회원가입은 대한의학회 뿐만 아니라 의편협의 경사임에 틀림없다. 그동안 국내 출판계는 국제 시장에서 아무런 경쟁력이 없는 소규모 황무지 같은 상태에 있었다. 하루하루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는 치열한 국제 출판계에 우리 출판계도 경쟁력이 있고 나름대로 강점을 살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한 것도 이번 ICMJE 회원 가입의 성과이다.

대한의학회 영문학술지, 학술지 최고 권위 기구인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ICMJE) 회원으로 선정

*“의학 학술지의 국제 표준을 정하는 선도 그룹에 참여하게 된 것은 한국 의학과 의료 발달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
“ICMJE에는 NEJM, JAMA, Lancet를 비롯한 최고 수준의 학술지 13개 단체만 엄선하여 구성된 학술단체”*

대한의학회가 발행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문 종합의학 학술지인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JKMS, 발행인: 이윤성 대한의학회 회장)가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의학학술 단체인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 <http://icmje.org>)에 정식 회원으로 선정되었다. 대한의학회는 향후 3년간 JKMS를 대표하여 편집장인 홍성태 교수(대한의학회 간행이사)를 ICMJE의 관련 회의에 파견 할 예정이다.

ICMJE에는 전 세계 많은 의학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를 원하는 최고 수준의 명성과 권위를 자랑하는 NEJM(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JAMA(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Lancet 등 13개 학술단체만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ICMJE는 생의학학술지에 투고하려는 원고가 갖추어야 할 이상적인 형식과 지침을 담은 밴쿠버양식이라 부르는 ‘권고안(Recommendations for the Conduct, Reporting, Editing, and Publication of Scholarly Work in Medical Journals)’을 제정하고 의학학술지 출판, 편집, 논문작성, 연구출판윤리 등과 관련된 국제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학술지가 ICMJE에 회원으로 선정된 것은 우리나라 의학학술지를 대표하는 JKMS의 우수성과 함께 우리나라 의학연구 수준도 국제학계로부터 공인을 받고 있다는 의미가 있고, 국제적으로도 매우 명예스러운 일이다. 국제 학술지 정책을 결정하는 선도 그룹에 한국 의학학술지가 참여하게 된 것은 국내 의학계뿐 아니라 국가적인 경사이다.

Asia Pacific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APAME) 2016 연차총회 보고

2016년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동안 태국의 방콕에서 개최되었던 Asia Pacific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APAME) 2016 Convention 은 의편협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 의편협에서는 홍성태 교수(회장), 서정욱 교수(국제협력위원장), 이춘실 교수(정보관리위원), 양희진 교수(기획평가위 간사) 및 김태일 교수(정보관리위 간사/기획평가위원)가 (주)XMLink 장혜숙 대표를 포함한 11인의 직원 및 7인의 학생인턴과 함께 참석하였다. 27일 세션에서 홍성태 교수와 서정욱 교수는 각각 ‘Authorship abuse: the most frequent misconduct of publication ethics in medical journals’와 ‘A new initiative of Open Access’ 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28일 이어진 ‘Crossing the Digital Divide in Journal Publishing’ 를 주제로 한 세션에 초청 연자로 위촉된 이춘실 교수, 홍성태 교수, 김태일 교수는 ‘Rethinking Journal Editing and Publishing Workflows’, ‘Successful Change of Workflow in Publishing a Medical Journal for Fast and Early Online Publication’, 및 ‘Digital Culture in KAMJE Journals’ 에 대한 특강을 각각 진행하여 500 여명의 청중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또한, 홍성태 교수와 양희진 교수의 ‘The 20th Anniversary of KAMJE: Achievements and Perspectives’ 와 ‘The Contributing Role of Journal Evaluation Program of KAMJE in Improving Quality of Member Journals’ 에 대한 포스터 발표는 참관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번 convention의 백미인 ‘Future of Better Visibility of Local Journals Workshop’은 의편협이 APAME 측의 요청을 수락하여 공식행사로 치뤄지게 되었는데, (주) XMLink 의 주관으로 ‘JATS XML for APAMED Central’ 을 주제로 진행된 워크샵에는 당초 50명으로 제한된 사전등록자수를 초과한 많은 청중들이 각자의 노트북 컴퓨터를 지참하고 참석하여 대미를 장식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특별히 본 행사를 위해 APAME 측에서는 이춘실 교수가 영어로 진행한 본 워크샵에 대한 현지 관련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현지어 통역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등 의편협의 국제적 인지도와 XMLink 의 탁월한 기술력이 대접받은 행사가 되었다.

한편, 향후 2년간 APAME를 이끌어갈 신임 임원진 구성에서 권오훈 의편협 부회장은 APAMED Central 위원장으로 연임되고, 서정욱 교수와 김태일 교수가 각각 선임 부회장 및 IT & Library Committee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APAME 2016 Convention 을 함께한 의편협 임원진과 (주) XMLink



'JATS XML for APAMED Central' Workshop 을 진행하는 이춘실 교수



(주) XMLink 주관으로 진행된
'JATS XML for APAMED Central' Workshop 실습



'JATS XML for APAMED Central' Workshop 실습 현장

김태일 교수는 APAME 2016 Convention 참관후기를 의편협 회원학술지인 Journal of Periodontal & Implant Science 의 최신호에 editorial (<http://dx.doi.org/10.5051/jpis.2016.46.4.219>)로 게재하여 Synapse, PubMed Central, Web of Science 및 Scopus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배포하였다.

Advancing toward quality, collaboration, and public access

Tae-Il Kim

Department of Periodont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Dentistry, Seoul, Korea.

This August I had the opportunity to discuss scientific publication policy with my colleagues in the Asia Pacific region and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at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Asia Pacific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APAME) held in Bangkok, Thailand. APAME is an Asia Pacific-centered nongovernmental, nonpartisan and nonprofit organization under a mission to promote and advance journalism in medicine in the region through active interactions among scholars to achieve the greatest exchange of information possible. The WHO regional offices in charge of the Western Pacific Region Index Medicus(WPRIM) and the Index Medicus of the South East Asia Region(IMSEAR) also work very closely with the organization.

With the exponential growth of medical knowledge, the significance of pinpointing accurate and up-to-date information to keep the momentum going cannot be stressed enough. What is crucial in the current stage is more collaborative

work among the best publishers, which will contribute tremendously to effective global communication and increase in publication quality. When we have made headway among ourselves, it will be time to shift our focus to making public access to notable scientific findings more effortless in order to close the gap between researchers' academic knowledge and the clinical expertise of healthcare personnel.

With that said, the APAME 2016 program was an experience-sharing event for medical journal editors, reviewers, editorial staff, publishers, and librarians that aimed to address the various programs promoting better collaboration and facilitating communication among medical journal editors for better editorial standards and professionalism in medical editing. Dr. Wonchat Subhachaturas opened the door to these possibilities in presenting "Knowledge Visualization: Quality Publication to the Grassroots" emphasizing the genuine value of research work. This was followed by "The Ongoing WHO Database in Thailand and the Development of IMSEAR" delivered by Mr. Charles Patrick Raby, who is in charge of the WHO Regional Office for South-East Asia, who greatly inspired the audience. He described the challenging task of keeping databases updated while ensuring quality control of the content. Dr. Nicholas J Talley, a Laureate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Newcastle Australia, presented "A Vision for the Medical Journals of Australia in a Time of Disruptive Innovation" and Dr. Sung-Tae Hong,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KAMJE), provided perspective with "Crossing the Digital Divide in Journal Publishing". The pinnacle of the convention was when XMLink, a subsidiary of KAMJE, gave the workshop "XML in e-Journal Platforms" to share significant ideas and advances in the standard information technology used in e-journals.

Our gathering at the APAME 2016 convention was a reconfirmation that striving for better quality, academic collaboration, and public access to medical research will be key to success in the global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quality health information that will lead to better decision making and improvements in health care.

New Crossref DOI display guidelines 안내

Crossref는 2016년 10월부터 새로운 DOI display guideline을 발표하였습니다(Crossref blog: New Crossref DOI display guidelines are on the way). International DOI Foundation(IDF)의 규약이 변경되었고,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새로운 DOI 표기 방식에서는, <http://dx.doi.org/> 대신 <https://doi.org/> 를 사용합니다. 즉 "http://" 대신 "https://"를 사용하고, "dx.doi.org" 부분에서 "dx."는 더 이상 삽입하지 않습니다.

e.g., <http://dx.doi.org/10.12786/bn.2016.9.e6> → <https://doi.org/10.12786/bn.2016.9.e6>

그림 1 : 의편협에서 구축하는 데이터베이스인 KoreaMed, Synapse, KoMCI와 KAMJE Press에는 Crossref의 새로운 지침에 따라 "https://doi.org/"로 시작하는 DOI로 이미 변경하여 모든 레코드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림 2 : 학술지 인쇄본의 각 논문에 부여하는 DOI 표기를, 기존의 "http://dx.doi.org/"에서 Crossref의 새로운 권장 지침인 "https://doi.org/"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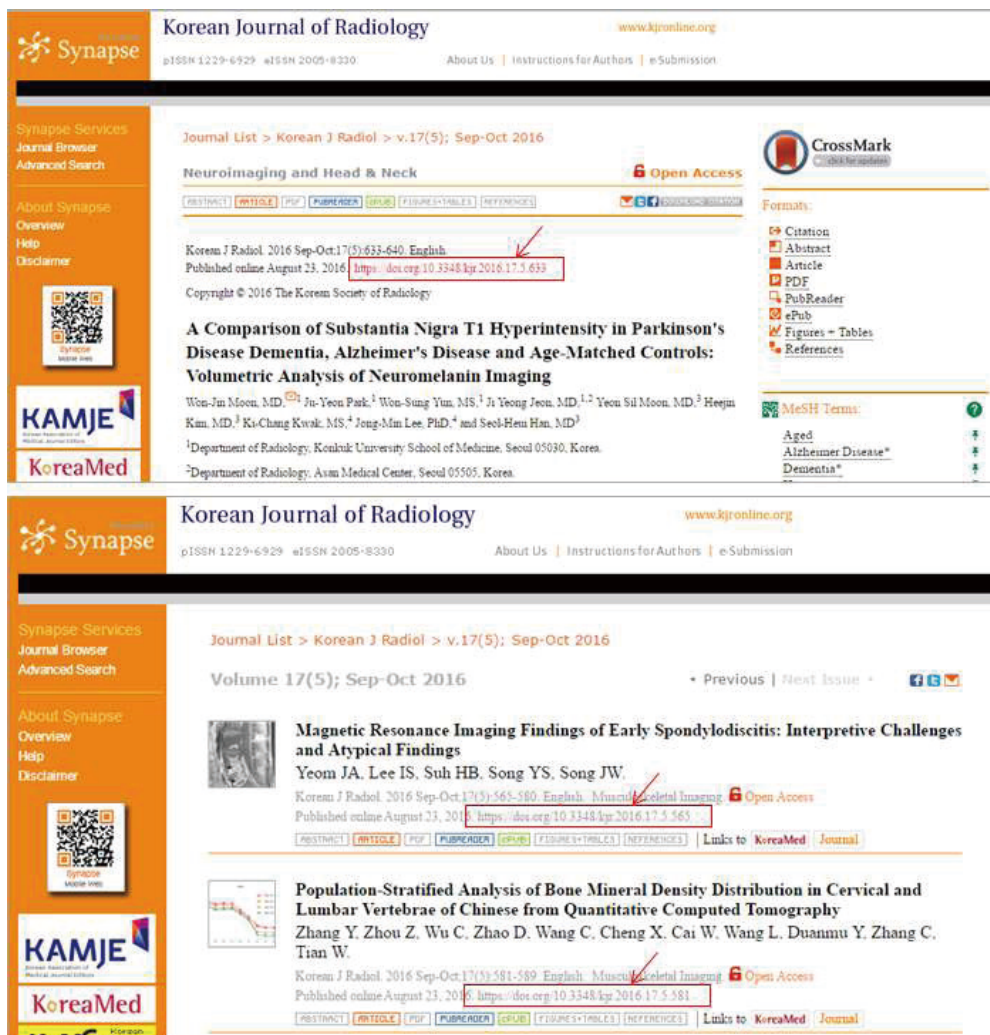


그림 1. 새로운 DOI 표기로 변경한 Synapse 화면



그림 2. 새로운 DOI 표기로 변경한 학술지의 PDF 화면

제10회 의학학술지 편집인 아카데미 개최 안내

의편집에서는 국내 의학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편집인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제10회 의학학술지 편집인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11월 25일(금)까지 의편집 홈페이지(kamje.or.kr)의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어 사전등록을 하여 주시고, 사전등록기간이 지난 후에는 당일 현장등록이 가능합니다. 당일 중식과 연세의료원 지하 주차장 주차권이 제공됩니다. 상세 일정은 아래 일정표를 확인하여주시고, 강의 제목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16년 12월 9일(금)~10일(토), 제1일: 9:00~17:10 / 제2일: 9:00~16:20

장소: 연세의대 에비슨 의생명연구센터(ABMRC) 1층 유일한홀

제1일 12월 9일(금)		
09:00 - 09:10	인사말	홍성태 (의편집 회장, JKMS 편집장)
09:10 - 09:15	프로그램 안내	이은소 (의편집 교육연수위원장)
09:15 - 09:35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업무 소개	김혜원 (의편집 운영위원회 간사)
09:35 - 09:55	의편집 학술지 평가 소개	오세정 (의편집 기획평가위원장)
09:55 - 10:15	2015년 의편집학술지의 JCR 및 SJR Impact Factor 변화	최인홍 (의편집 부회장, YMJ 전 편집장)
10:15 - 10:55	학술지 발전 경험 공유 1) 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 (EMM) 2) Journal of Stroke (JoS)	1) 주대명 (EMM 편집위원장) 2) 김종성 (JoS 편집위원장)
10:55 - 11:15	휴식	
11:15 - 11:45	전문가 심사 잘 하기	홍성태 (의편집 회장, JKMS 편집장)
11:45 - 12:15	학술지 편집인의 역할	박중원 (의편집 교육연수위원회 간사)
12:15 - 13:40	점심	
13:40 - 14:00	Successful Change of Workflow in Publishing a Medical Journal for Early Online Publication	홍성태 (의편집 회장, JKMS 편집장)
14:00 - 14:20	Rethinking Journal Editing and Publishing Workflows	이춘실 (의편집 정보관리위원)
14:20 - 14:40	Digital Culture in Journal Publication	김태일 (의편집 정보관리위원회 간사, 기획평가위원회 위원, JPIS 편집장)
14:40 - 15:00	ORCID Search & Link Wizard for KoreaMed	이춘실 (의편집 정보관리위원)
15:00 - 15:40	ORCID Updates	Nobuko Miyairi (Asia Pacific Regional Director, ORCID)
15:40 - 16:00	휴식	
16:00 - 16:20	Editor's Eye on Publication Timestamps	이윤석 (의편집 정보관리위원)
16:20 - 16:40	Crossref Updates	추후 공지 예정
16:40 - 17:00	KoreaMed and Synapse Updates	권오훈 (의편집 부회장, 정보관리위원장)
17:00 - 17:10	종합토론	이은소 (의편집 교육연수위원장)
17:10	폐회	홍성태 (의편집 회장, JKMS 편집장)

제2일 12월 10일(토) / 주제: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는 연구출판윤리

09:00 - 09:10	인사말, 프로그램 안내	이은소 (의편협 교육연구위원장)
09:10 - 09:50	의생명연구윤리	김옥주 (서울의대 인문의학교실)
09:50 - 10:20	표절	김수영 (의편협 출판윤리위원)
10:20 - 10:50	저자됨	한동수 (의편협 출판윤리위원회 간사)
10:50 - 11:10	휴식	
11:10 - 11:50	저자 실명제 합시다	홍성태 (의편협 회장, JKMS 편집장)
11:50 - 12:00	CRedit: 저자 역할 구분하기	이춘실 (의편협 정보관리위원)
12:00 - 12:30	중복출판	배종우 (의편협 출판윤리위원장)
12:30 - 14:00	점심	
14:00 - 14:30	지적재산권	김재원 (의편협 운영위원장)
14:30 - 15:00	심사와 편집과정에서의 윤리	최인홍 (의편협 부회장, YMJ 전 편집장)
15:00 - 16:00	COPE guidelines	Liz Wager (Sideview, UK)
16:00 - 16:20	종합 토론	이은소 (의편협 교육연구위원장)
16:20	폐회	이은소 (의편협 교육연구위원장)

제15차 KoreaMed 등재 7년차 의학학술지 재평가회 보고

의편협에서는 KoreaMed 등재지를 7년 주기로 평가하여 단체회원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바, 올해에는 2009년에 등재된 학술지 총 12종(Clinics in Orthopedic Surgery,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Anesthesia & Pain Medicine, Journal of Periodontal & Implant Science, 대한화상학회지, Electrolytes & Blood Pressure,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for Health Professions, Gut and Liver, Journal of Minimally Invasive Surgery, Nutrition Research and Practice, Pediatric Infection & Vaccine, Psychoanalysis)을 재평가하였습니다. 의편협이 마련한 자체평가, 실물평가, 협의회 조사항목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기준 평점 3.0 이상을 획득한 학술지는 KoreaMed 등재 자격을 유지하게 되며, 2년 연속 평점 3.0 이하를 받을 경우 등재 자격을 상실하여 KoreaMed 등재심사부터 다시 받게 됩니다.

2016년도 하반기 의편협 주요 일정 안내

의편협에서 주최하는 올해 하반기 주요 학술행사 및 평가회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제37차 KoreaMed 등재를 위한 의학학술지 신규평가회 : 2016년 11월 10일(목), 서울의대 행정관 2층 대회의실
- 제10회 편집인아카데미 : 2016년 12월 9일(금) ~ 10일(토), 연세의대 ABMRC 유일한홀
- 제8회 논문작성 워크숍 : 2017년 2월 4일(토),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성의회관 마리아홀

2016 의편협 워크숍 보고



의편협에서는 2016년 7월 19일(화)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 강당에서 2016 의편협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Turnitin사의 Content Partner Manager인 Shivendra Naidoo가 Diagnosing Similarity: Testing for Unoriginal Research in the field of Medicine을 주제로 강의하였으며, Crossref의 Rachael Lammey가 최근 동향과 New Crossref Initiatives (Early content registration and DOI event tracker)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또한 홍성태 의편협 회장(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편집위원장)이 학술지 편집 및 발간 Workflow 변경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학술논문의 신속한 발간 및 온라인

조기 출판이 가능해진 사례를 발표하는 등 총 4개의 강의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학술지 편집인과 관련 종사자 등 총 9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제7회 논문작성 워크숍 보고

2016년 8월 20일(토) 가톨릭의대 성의교정 성의회관 내 마리아홀에서 제7회 논문작성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Ten tips in writing medical articles', '표지, 제목, 초록 다듬기', '서론, 재료 및 방법, 결과 다듬기', 'End Note X7.5의 활용', '연구자를 위한 그래프 그리기, 그림파일 작업 도구', '웹에서 하는 R 통계', 'Writing English Medical Papers: Errors and Recommended Expressions', '저자로서 편집자 및 심사자와 소통하기', 'Seven Steps to



Publishing Success and ORCID at Wiley'라는 주제 아래 총 9개 강의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학술지 편집인과 강사, 전공의 등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342명이 등록하였습니다.